

# VBAC산모의 유도분만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자궁경부길이

조운성, 윤원식, 권지영, 김사진, 신종철, 이 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Objectives (목적)

과거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은 산모는 다음 임신에도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분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다. 1968년 이후 태아감시장치의 사용으로 급속하게 제왕절개술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70년경부터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산모에서 자연분만 (VBAC)이 시도되었다. VBAC에서 유도분만이 자궁의 파열을 높인다는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예정일이 지난 산모들의 유도분만은 기피되어진다. 하지만 VBAC산모들 역시 자궁 내사망과 같은 주산기사망율이 주수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도분만을 결정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유도분만을 위한 약제로는 옥시토신만을 사용하였을 때 자궁경부 길이와 유도분만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 Methods (연구 방법)

2007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브이백을 시도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352명의 브이백 시도가 있었으며, 이중 유도분만은 81명이었다. 유도분만은 옥시토신만을 이용하여 시도하였다.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는 유도분만을 시도하기 전 4시간 이내에 경질초음파를 이용하여 자궁경부길이를 측정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산모는 57명이었다.

## Results (결과)

브이백 시도한 환자중에서 유도분만은 시도한 군은 81명으로 유도분만률은 23%였다. 산모의 평균나이는 32.5세였으며 출산력은 1.05회였다. 유도분만전 자궁경부길이는 2.44 cm이었으며, 유도분만에 걸린 시간은 평균 30.9시간이었다. 유도분만전 자궁경부길이와 유도분만에 소요된 시간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2$ 이 0.146이었다.

## Conclusions (결론)

브이백의 유도분만은 브이백의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이며, 이에 따른 산모나 가족의 불안도 높아진다. 브이백 유도분만시에 자궁경부길이를 측정하여 유도분만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느정도 예측함으로써 산모와 보호자 설명에 사용할 수 있겠다.